북스

Books

느릿느릿~ 달콤한 추억여행

나른한 봄날 오후, "아 기차타고 어디론가 떠났으면…"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기차여행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쉼' 그리고 '느림'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현실은 현대인의 이러한 아날로그적 욕구를 가볍게 무시하기 일쑤다. 열차시간표에서 사라져버린 비둘기호의 자리를 KTX가 메꾸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 소설가 에릭 파이의 '야간열차'는 독특한 여행기다. 저자는 이 책을 두고 '여행기 아닌 여행기'라고 이름짓고 있다. 대개 여행기가 목적지와 여행을 떠나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과 달리, 이 책의 여행목적은 그저 '야간열차'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야간열차라는 주제만 있을 뿐 저자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가로지른다.

1980년 무렵 바칼로레아(프랑스 대학수학능력시험)를 마치고 처음으로 야간열차를 타고 레닌그라드로 떠났을 때부터 시작해 2000년께 몽골횡단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개방 물결을 온 몸으로

야간열차 에릭 파이 지음

느끼던 때까지, 저자는 유라시아에 거미줄처럼 퍼진 철길을 따라 '느림의 미학'을 실천한다.

게다가 풍부한 문학 작품과 영화 등으로 넘나드는 저자의 인문학적 지식은 독자들이 동행한 '야간열차 여행'을 지루하지 않게 해준다. 야간열차 때문에 생긴 '불면증'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저자는 프랑스 철학자 에밀 시오랑의 말을 인용한다. "잘 잠 다자고 보낸 일 년보다 잠 못 이루고 보낸 하룻밤 사이에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저자는 야간열차가 "도시 생활에서 추방된 시간관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야간열차에서 보내는 밤이면 자신의 내면 영역이 확장됨을 느낀다고 한다. 또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환상의 매개체로 열차를 이용해왔는지를 알려준다. 피츠제럴드의 소설에서, 디노 부차티(이탈리아 소설가)의 작품에서 등장한 열차를 예로 든다.

산책하는 중에도 지나친 문명화의 폐단에 대해서는 아프게 꼬집는다. "초고속열차 테제베는 여유로운 공간과 평온한 휴식을 몰아내버렸다. 느림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시(詩)를 죽여버렸다." 시간의 속박을 벗어나 밤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저자의 '야간열차 예찬'은 계속된다.

저자는 모스크바에서 프라하로, 스플리트에서 사라예보로, 베를린에서 베이징으로, 울란바토르에서 시베리아로 떠났던 수많은 열차여행의 추억을 하나씩 꺼낸다.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 이 여정 자체가 인생의 축소판으로 다가온다. 땅덩이가 좁은 우리나라에는 좀처럼 야간열차를 탈 기회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열차 여행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하나가 되는 것"인 만큼 '에릭 파이호 야간열차'에 올라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푸른숲·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부에서 찾은 중동갈등 요인

배리 루빈 '중동의 비극'

총성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면 누구든 '중동'을 말할 것이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가 월남 이후 처음으로 파병을 한 곳이 바로 중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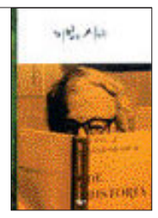
이란인 국제문제 전문가 배리 루빈이 쓴 '중동의 비극'은 중동의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중동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며, 책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중동 전문서적들이 문제를 외부적 요인에서 다뤘다면, 이 책은 내부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중동 아랍인들의 대화와 책으로 출간된 담론 등을 살펴보고 여러 갈등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한울아카데미·1만9천원〉

공산주의와 재즈에 빠진 좌파 역사학자의 치열한 삶

미완의 시대 에릭 홉스봄 자서전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정치와 경제, 심지어 재즈까지 섭렵하는 해박한 지성. 좌파 역사학자지만 균형잡힌 사관으로 좌우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세계적 석학.

에릭 홉스봄(90·사진)은 화려한 수식어 만큼 곡절 많은 인생을 산 영국 역사학자다. 영국 국적을 가진 유태인이었음에도 영국에서는 유럽이민자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으로 외면당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학자는 아니지만 그가 쓴 '극단의 시대',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등 저서는 인문학계에서 손꼽히는 필독서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그가 자신의 인생역정과 20세기에 대한 경험, 역사학자로서 생각의 편린들을 자서전 '미완의 시대'에 담았다.

'극단의 시대' 20세기를 살았던 에릭 홉스봄은 독자와 산책하듯이 당시 정치적 사건과 맞물린 개인사와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들려준다.

50년 동안 당적을 유지한 공산당원이었던 그는 20세기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젊은이들에게 파고든 것은 정치에 대한 열정과 공산주의의 매력이었다고 회고한다.

특히 피억압자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집단 황홀경'과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완벽하고 총체적인 지적 체계가 주는 미학적 강점을 꼽는다.

이 처럼 그의 자서전을 따라가다 보면 나치즘과 파시즘, 1·2차 세계대전 등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온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세계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주류 역사학계의 동류의식에 영합하지 않았던 그는 유대인에 대한 파격적인 주장도 거침없이 토로한다.

호전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모여 살기보다는 흩어져 사는 것이 오히려 인류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주장이 정당하려면 유대인 스스로 거주지를 떠나 인류를 위해 괄목할 만한 일을 해야한다는 충고도 덧붙인다.

영국 런던의 음악잡지 '뉴스테이츠먼'지에서 필명으로 재즈비평을 할 정도로 재즈에 심취했던 그는 '외모 때문에 재즈에 빠졌다'는 진솔한 고백도 곁들인다. 얼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육체적 관능과 성욕을 억제하는 대신 절대적 감성을 심어준 재즈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다.〈민음사·2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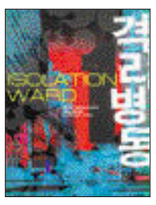
▲내가 사랑하는 모차르트=MBC 시사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수 있다'의 이채훈 프로듀서가 '모차르트 사랑'을 엮었다. 서울 튜티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를 연주해 지휘자로 데뷔하기도 했던 저자는 책을 통해 '인간 모차르트'를 얘기한다. 〈호미·1만5천원〉

▲흑(黑)과 다(茶)의 환상(전 2권)=일본의 베스트셀러 추리작가 온다 리쿠의 장편소설. 대학 동창인 리에코, 아키히코, 마키오, 세쓰코 등 4명은 함께 세계 자연유산인 Y섬을 방문한다. 태고의 원시림을 간직한 섬에서 이들은 이상한 사건을 접하게 되고 서로가 탐정이 돼 하나씩 사건의 베일을 벗긴다. 〈북폴리오·각 권 9천원〉

▲재즈잇업(jazz it up)3=재즈 비평가 남무성의 '만화로 보는 재즈 걸작선' 시리즈 완결편. 재즈의 야사를 제공했던 '재즈잇업'의 세번째 책이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해박한 지식으로 독자들을 재즈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고려원북스·1만5천원〉

▲리더십의 본질=세계 역사에 드러난 18인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리더십을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람세스, 한니발, 유방, 알렉산더 등 역사적인 지도자 18인의 생애와 업적을 돌아보고 대담성, 용병술 등 18가지 경영 스타일을 분석한다. 〈비즈니스맵·1만8천원〉

▲행복한 나그네 매표소 시인, 장수명=8년째 부천의 한 중학교 앞에서 1평 짜리 매표소를 운영 중인 소아마비 장애인 장수명씨가 써내려가는 자기고백서이자 다큐멘터리. '왕따'의 삶을 살아야 했던 저자는 매표소의 좁은 공간에서 바라본 바깥 세상을 수채화처럼 담아내고 있다. 〈멘토·9천500원〉



▲격리병동(전 2권)=미국 스탠포드 의대생이 쓴 메디컬 스릴러 소설. 같은 증세를 보이는 세 명의 여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들은 복통, 고열 등을 앓다 목숨까지 잃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자이고 보호소에 산다는 것. 〈신원문화사·각 권 8천500원〉

▲한국의 기획자들=일류 기업의 프로기획자 100명이 밝히는 성공적인 기획 노하우 30가지가 담겨 있다. '성공 비즈니스의 처음이자 끝은 기획'이라는 전제 하에, 필자 5명은 100명의 인터뷰에서 얻은 여러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토네이도·1만2천원〉

▲컨닝소녀=일본 작가 구로다 겐지의 실화소설. 이 책은 저자를 인기 작가 반열에 들게 한 대표작이다. '컨닝드림팀'으로 불리는 4명의 고등학생들이 벽처럼 서서 자신을 감시하는 교사들에게 선전포고를 외친다. 책 곳곳에 저자 특유의 삶에 대한 냉소와 잔잔한 휴머니즘이 잘 살아 있다. 〈노마드북스·9천800원〉

▲낙랑군 연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오영찬씨가 10여년의 연구 끝에 얻어낸 성과물을 엮은 책이다. 저자는 낙랑고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지배세력의 성격을 파악하고 중원의 식민지이면서 한반도의 토착적 영향력이 작용했던 공간, 낙랑군을 파헤친다. 〈사계절·2만5천원〉